

8월 2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2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차익실현에 혼조..다우 0.03%↑	뉴욕 증시가 24일(현지시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음. 급등 부담속에 은행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가 차익실현 매물을 촉발, 주요 지수들이 장막판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세로 반전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3.32포인트(0.03%) 상승한 9,509.2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2포인트(0.14%) 하락한 2,017.98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0.56포인트(0.05%) 내린 1,025.57을 각각 기록했음. 이날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나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운데 잭슨홀 모멘텀을 이어받으며 상승세로 출발했음. 주말 동안 열린 잭슨홀 회의에서 중앙은행장들이 최악의 위기가 지나갔다는 데 공감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그러나 나홀간의 급등으로 인해 가격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 후반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자 주요 지수는 보합권으로 밀렸음. 특히 최근 강세를 지속하던 은행주가 선트러스트 회장의 은행업 손실 전망 발언 여파로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 조정 분위기를 부추겼음. 아울러 정부의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이 이날 오후 8시로 종료된다는 점도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음. 다만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에너지주가 일제히 상승해 증시 하락폭은 제한되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13개가 상승했고, 17개가 하락했음.
중고차 보상 종료로 소비 위축 우려	미국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 종료는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관련주 약세를 주도했음. 프로그램 종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포드가 5%대 하락한 것을 비롯해 베스트바이, 원담월드와이드가 3~4% 약세를 나타냈음. 이날 다우 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은 모두 소비 관련주였음. 코카콜라는 1.70%, 홈디포는 1.71%, 크래프트는 1.42% 떨어졌음.
국제 유가 배럴당 74달러대로 치솟아	국제 유가가 배럴당 74달러대로 상승하면서 주요 에너지주는 일제히 상승했음. 셰브론은 1.5%, 엑손모빌은 2%, 코노코필립스는 2.5% 오르며 이날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제한했음.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48센트(0.6%) 상승한 74.37달러에서 마감했음. 유가는 이날 장 중 배럴당 74.81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는 지난해 10월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외국은행들, 美 파산은행 인수 `눈독`	파산한 미국 은행 인수에 외국 은행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 지난 21일 스페인 방코 빌바오 비스까야 아르헨타리아(BBVA)가 텍사스주 소재 개런티 뱅크를 인수한 바 있음. 파산한 미국 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프랑스 BNP파리바, 토론토-도미니언 뱅크, 네덜란드 라보뱅크 그룹 등. BNP파리바는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있는 자회사 뱅크 오브 웨스트를 통해, 토론토-도미니언은 포틀랜드주 메인에 두고 있는 TD뱅크를 통해, 라보 뱅크 그룹은 캘리포니아주 엘 센트로 소재 자회사 라보뱅크를 통해 각각 인수 기회를 노리고 있음.
李대통령 "긴급 예산 통해서라도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해야"	이대통령은 이날 아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종플루 현황과 올해 10, 11월경 대유행이 우려되며, 현재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 규모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뢰를 얻도록 하라"고 지시. 한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맞춰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관계부처 차관과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음.
2분기 전자상거래, 금융위기 이전 '회복'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덕분에 지난 2분기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 전분기에 비해서도 11.3% 늘어나며 지난해 4분기(-0.2%)이후 3분기만에 증가세로 반전.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9년 2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66조9,0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증가. 이는 지난해 3분기(166조7,830억원)보다 1,200억 많은 수치. 2분기에는 특히 기업과 정부(B2G)간 거래가 정부의 건설공사 계약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4.7% 늘었음.
금호타이어 25일 직장 폐쇄 단행	금호타이어는 25일 오전 4시부터 노조의 쟁의행위 철회시까지 광주 곡성 평택공장에 대해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음. 회사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상황 하에서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직장 폐쇄하게 됐다"고 설명.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또 6월 25일부터 시작된 쟁의행위가 무려 60일을 넘기면서 지난 24일 현재 1,00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을 입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